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Yahoo Finance: 미 경제 3분기 시작되면서 ‘골디락스’ 신호
- Bloomberg: 미국 경제, 2022년 이래 가장 더딘 성장 예상돼
- CNBC: 미국인 5명 중 3명, “경제 침체에 있다”
- WSJ: 1세기 만에 호황이었던 일자리 시장 끝난다

#### [미 대선]

- WSJ: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입장은?
- WSJ: 대형 오일 회사들 트럼프 에너지 정책 지지

#### [미국 금융]

- Bloomberg: 증시 하락세... “인공 지능 투자 성과 필요” 실망감에

#### [주택]

- Bloomberg: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2월 이래 최저 수준

#### [에너지]

- CNBC: 미 원유 선물, 3일 연속 하락 후 1% 이상 반등

#### [미중 경제]

- CNBC: 대형 반도체 장비 기업, 중국 매출 비중 두 배 증가... 미국 수출 규제 강화 영향
- Bloomberg: 골드만삭스 "중국, 트럼프 대응 위해 재정 여력 비축 중"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공개 연기에 주가 큰 폭 하락
- WSJ: 구글, AI 투자 비용 증가로 2분기 실적 '기대 이하'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Yahoo Finance: US economy showing signs of 'Goldilocks' to start third quarter

#### 미 경제 3분기 시작되면서 ‘골디락스’ 신호

-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 압력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 S&P Global's flash US composite PMI에 따르면 7월 중 비즈니스 활동은 27개월 만에 가장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서비스와 제조 부문을 합친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에 55를 기록해 6월에 54.8 보다 상승했다. 예상치는 54.2.
- 이같은 경제 활동의 상승은 물가 하락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평균 물가 상승률은 1월 이래 가장 서서히 상승했다.

Yahoo Finance 기사

### **Bloomberg: US Is Poised for Weakest Growth Stretch Since 2022** 미국 경제 2022년 이래 가장 더딘 성장 예상돼

-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 매월 일자리 증가가 평균 22만2천건으로 작년 동기 28만9천건보다 줄었다. 실업률도 4.1%로 상승세다.
- 모기지율은 거의 7%를 유지하고 있어 팬데믹 전 평균 4% 선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 연준이 실제 경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최근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연준 가운데 거의 반 정도의 지역은 비즈니스 활동이 둔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2분기 성장이 연율로 2% 성장하는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이래 가장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 **CNBC: Is the U.S. in a recession? Roughly 3 in 5 Americans think so, report finds** 미국인 5명 중 3명, “경제 침체에 있다”

- 관련 조사 Affirm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명 중 3명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번 6월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기 침체가 지난해 3월쯤 시작되어 내년 7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CNBC 기사

## WSJ: The Hottest Job Market in a Generation Is Over

### 1세기 만에 호황이었던 일자리 시장 끝난다

- 뜨거웠던 고용 시장과 낮은 실업률로 수백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임금 상승과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가는 ‘일자리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 6월 실업률은 4.1%로, 2021년 이래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이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작년 초에 3.4에서 크게 뛴 것이다.
-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자 한 명당 오픈된 일자리는 1.2개로, 2022년 2개 이상이었던 시점보다 크게 떨어졌다.
- 고용이 팬데믹 전 수준보다 떨어졌다. 구직 사이트인 Indeed의 이코노미스트인 Nice Bunker는 “팬데믹 충격으로 온 일자리 호황이 계속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일자리 호황이었던 2022년 3월에는 임금이 연간 5.9% 치솟았다.

WSJ 기사

### [미 대선]

## WSJ: What Would a Harris Presidency Mean for the Economy?

###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 입장은?

- **요지:**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노동자들과 중산층 권익을 강조하고 있다
- **경제적 도전:** 바이든 재임 시기의 높은 물가가 근로 계층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부통령 초기 재임 때 소기업 용자 탕감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 **세금 정책:** 연소득 40만불 미만의 세금을 동결 또는 감세하는 반면에 법인과 고소득자 계층에는 증세를 추진해온 바이든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해리스는 과거에 보편적 소득을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3천불, 부부에게 6천불의 세금 공제토록 주장했다. 대신에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혜택의 10%만 전체 소득계층의 상위 40%에게만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과 대통령 후보 당시 주창했었다.
- **주택 임대자 지원:** 그는 높은 임대료에 반대하면서 이른바 Rent Relief Act를 지지했다. 이는 연소득 10만불까지 버는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등에 소진하는 이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무역:** 그는 미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이 노동자들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반대했었다. 미국은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해리스는 또

한 연방 상원 시절에 미 멕시코 캐나다 재협정이 환경 규제에서 불충분하다며 반대했다. 바이든은 이를 찬성했다.

- **임금:** 그는 특히 남녀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교사 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 **에너지와 환경 이슈:** 그는 미 에너지와 송전 인프라 전환을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급속히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석유와 가스를 분쇄하는 프래킹(fracking)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담은 인플레이 감축법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 WSJ: Oil Billionaires Bet on Trump's Energy Agenda 대형 오일 회사들 트럼프 에너지 정책 지지

- 트럼프 공화당 후보자는 지난주 목요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대형 오일 회사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정책 발언을 했다.
- 그는 “우리는 발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유동성이 많은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오일이 풍부하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발언은 대형 석유 회사들인 Continental Resources, Energy Transfer, Hilcorp, GeoSouthern Energy 책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었으며 이들은 트럼프 관련 지원 단체에 적어도 9백9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Slide on Concern AI Still a 'Show Me' Story: Markets Wrap

#### 증시 하락세... “인공 지능 투자 성과 필요” 실망감에

-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가캡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을 이끈 인공지능 열기가 “여전히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S&P 400 은 오늘 정오 가까이 마이너스 1.53%로 지수가 5,470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나스닥은 2.43% 빠진 17,569를 기록하고 있다.
- 알파벳은 다른 경쟁사보다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4% 빠졌으며 테슬라는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자율 로보 택시 발표 일정을 연기하면서 주가가 12%나 하락했다.

## Bloomberg 기사

## [주택]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Eases to Lowest Level Since February****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2월 이래 최저 수준**

- 지난주 미국 모기지 금리가 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주택 구매 신청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더 저렴한 대출 금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수요일 발표된 모기지 은행 협회(MBA)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월 19일로 끝나는 주에 5 베이스 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 그런데 모기지 신청 지수는 4% 감소하여 5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모기지 금리는 7% 미만이지만 여전히 2021년 말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높은 주택 가격과 함께 많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주택 구매자 구매력 지표는 5월에 4개월 연속 하락하며 198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Bloomberg 기사

## [에너지]

**CNBC: U.S. crude oil rebounds more than 1% after sell-off****미 원유 선물, 3일 연속 하락 후 1% 이상 반등**

- 미국 원유 선물이 수요일에 1% 이상 반등하여 3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끊었다. 이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캐나다 산불로 인해 공급 차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업계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 미국석유협회(API)는 7월 19일로 끝난 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가 386만 배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4주 연속으로 이어진 재고 감소이다.

## CNBC 기사

## [미중 경제]

**CNBC: Major global chip equipment makers' China revenue share has doubled since U.S. imposed export controls**

## 대형반도체 장비 기업, 중국 매출 비중 두 배 증가... 미국 수출 규제 강화 영향

-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애널리스트들은 월요일 보고서에서 **ASML**을 포함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4곳의 중국 매출 비중이 2022년 말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미국이 수출 제한을 강화한 이후 중국은 자체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를 가속화했다.
- **BofA**의 분석은 램 리서치, **ASML**, **KLA**,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중국 매출은 2022년 4분기 전체 매출의 17%에서 2024년 1분기 41%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의 중심에 있으며, 여기서 긴장이 더욱 고조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 Bloomberg: Goldman Sees China Saving Fiscal Firepower in Wait for Trump

### 골드만삭스 "중국, 트럼프 대응 위해 재정 여력 비축 중"

-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톨튼 (Andrew Tilton)은 화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그는 “그들이 재정 부양책이나 수요 측면의 부양책과 관련해 신중을 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년에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탄약을 아껴두자는 것이다.
- 현재 공화당 후보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을 위협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에서 약 2% 포인트를 떨어뜨릴 수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꺼리는 시기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추후 관세 타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수단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 긴축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전체 정부 지출은 올해 상반기에 2023년 대비 3% 가까이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Tesla Slumps as Musk Tethers Its Future to Delayed Robotaxis**

####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공개 연기에 주가 큰 폭 하락**

- 테슬라가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자율주행 택시 공개를 연기하면서 주가가 거의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 6월에 마감된 3개월 동안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4분기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시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약 두 달 연기해 10월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 테슬라의 주가는 수요일 뉴욕 증시 개장 후 11% 나 급락했는데, 이는 1월 25일 이후 장중 최대 하락폭이다.
- 테슬라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날 공개되는 차량은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한 모델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멕시코에 계획된 공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가동될 예정이며,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치를 급등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6년 이후에야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 **WSJ: Google Fails to 'Wow' as AI Bills Mount**

#### **구글, AI 투자 비용 증가로 2분기 실적 '기대 이하'**

- 알파벳의 모기업인 구글이 화요일 오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구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역량 구축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광고 및 클라우드 수익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
- 그러나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브렌트 툴(Brent Thill)은 이번 실적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no excitement)"고 평가했다. 매출 증가율은 0.6%로, 최소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월가의 컨센서스 전망치를 간신히 넘어서었다. 유튜브 광고 수익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 3개월 전에 발표된 알파벳의 보고서에서는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사의 첫 배당금 지급 발표도 있었다. 그 결과 알파벳의 주가는 해당 보고서 이후 약 17% 상승했지만, 수요일 사전 시장 거래에서는 약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실적 발표는 올해 하반기가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글은 2023년 하반기부터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

기 시작했으며, 2023년 상반기의 자본 지출은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252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WSJ 기사

## "중국, 트럼프 공급차단 우려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적대적 트럼프 재집권시 무역전쟁 재발 대비 관측  
원유·가스·곡물 등↑..."대만봉쇄 뒤 장기간 버틸 채비일 수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은밀히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과거 재임 기간 대중 '관세 폭탄' 등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중국에 대한 원자재 공급망을 옥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과 천연가스, 원유 등 중국의 각종 원자재 수입은 물량 기준 16%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개월간 6% 늘었다. 그러나 중국이 많은 원자재의 재고 통계 발표를 중단해 세부 규모는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